

다관왕·다연패·대회新... 광주·전남 메달 레이스 ‘순항’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3일째

광주 순현호 역도 2연패·2관왕
전남 댄스스포츠 사상 첫 3연패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광주와 전남 선수단이 순조로운 메달 레이스를 이어가고 있다. 다관왕과 다연패, 대회신기록도 배출하는 성과를 서두고 있다.

경남 김해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체전에 출전한 광주 선수단은 대회 3일째인 13일 오후 5시 현재 금메달 15개, 은메달 24개, 동메달 39개 등 총 78개의 메달을 수확하고 있다.

광주 선수단의 본경기 첫 금메달은 핀수영에서 나왔다. 양지원(광주시체육회)이 대회 첫 날인 11일 핀수영 여일부 짝핀 100m에서 49초05의 기록으로 금메달 레이스의 포문을 열었다.

역도 순현호(국군체육부대)는 11일 남일부 81kg급에서 2개의 대회신기록과 함께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목에 걸었다.

순현호는 남일부 81kg급 인상에서 153kg으로 은메달을, 용상에서 198kg을 들어 대회신기록으로 금메달을, 함께 351kg의 대회신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 2년 연속 2관왕을 차지했다.

양궁 오예진(광주여대 3)도 2관왕에 올랐다. 오예진은 지난 12일 양궁 여대부 70m에서 343점을 쏘 대회타이 기록으로 금메달을 딴 데 이어 13일 30m에서도 357점을 쏘며 금메달을 추가했다. 13일 50m에서는 345점으로 은메달을 거머쥐었다.

양궁 안산(광주은행)은 13일 여일부 30m에서 359점의 대회타이기록으로 금메달을 수확했다. 양궁 남대부 50m(341점)의 채진서(조선대 3)와 남자18세이하부 30m(357점)의 박주혁(광주체고 1)도 같은날 금메달을 따냈다.

사격 김도훈(한체대 1)은 12일 남대부



광주 양궁 대표 오예진(광주여대)이 13일 경남 진주공군교육사령부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양궁 여대부 30m에서 두번째 금메달을 딴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주양궁협회 제공

공기권총 개인전에서 240.1점으로 금빛 총성을 올렸다. 사격 오준서·황의혁·오준영·김정현(이상 한체대)은 13일 남대부 공기소총 단체전에서 1877.4점의 대회신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수영 다이빙의 김서경·김지욱(광주시체육회)은 12일 남일부 싱크로3m에서 374.07점을 획득하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레슬링 임선교(광주체고 3)는 13일 여U18 자유형 76kg급에서 금메달을, 육상 모일환(광주시청)은 같은날 남일부 400m(46초57)에서 금메달을 각각 수확했다.

전남은 13일 오후 5시 현재 금 14개, 은 14개, 동 37개 등 총 65개의 메달을 획득

중이다.

특히 육상에서 6개의 금메달이 쏟아져 호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심종섭(한국전력)이 13일 육상 마라톤에서 2시간21분56초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 2013년 94회 체전 때 박주영 이후 11년 만에 마라톤 금메달을 전남에 안겼다.

문혜솔(전남체고 2)은 같은날 여U18 포환던지기에서 13m58를 던져 금메달을, 박서진(목포시청)이 여일부 해머던지기에서 60m47로 금메달을 각각 획득했다.

이은빈(전남체고 3)은 여U18 100m에서 11초76의 대회신기록을 세우며 금빛 질주에 성공했다.



전남 댄스스포츠 김민수·김나연(순천시댄스스포츠연맹)이 12일 경남 김해동부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댄스스포츠 라틴3종목에서 금빛 댄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아영(광양시청)은 여일부 400m에서 54초98의 개인신기록으로, 최지선(전남체고 3)이 여U18 400m에서 57초02로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댄스스포츠 김민수·김나연(순천시댄스스포츠연맹)은 전남에 첫 금메달을 선사하며 댄스스포츠 사상 전국체전 첫 3연패 위업을 달성했다. 김민수·김나연은 12일 일반부 라틴3종목에서 총 118.290점을 받아 금메달을 획득했다.

김예은·이재현(이상 여수정보과학고)은 13일 시범종목인 댄스스포츠 18세이하부 차차차(34.900점)와 룸바(34.875점)에서 2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사격 배상희(상무)는 12일 여일부 50

m소총3자세에서 459.4점의 대회신기록으로 금빛 표적을 명중시켰다.

수상스키웨이크보드의 민병아(호야스토어)는 13일 여일부 개인전 금메달을, 소프트테니스 김명신·이시원(이상 순천대)이 남대부 개인복식에서 금메달을 각각 획득했다.

양궁 조한이(순천여고 2)는 13일 여U18 30m에서 356점을 쏘 금빛 과녁에 성공했고, 소프트테니스 김명신·이시원(이상 순천대)은 남대부 개인복식에서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최준희(일무체육관)는 시범종목인 합기도 일반부 미들급에서 금메달을 선사했다.

글·사진=경남 김해 최동환 기자

‘퓨처스 3관왕’ KIA, 투수 김유신 방출

고질적인 허리 부상에 발목
육성 선수 5명도 말소 요청

‘2차 1라운드’와 ‘퓨처스 3관왕’, ‘군필 좌완’ 등 인상적인 수석어로 기대를 모았던 김유신(사진)이 끝내 호랑이 군단 유니폼을 벗었다. 고질적인 허리 부상으로 신음한 가운데 빠른 방출 통보로 새 길을 터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KIA타이거즈는 투수 김유신과 재계약을 포기했으며 투수 박시온과 포수 이성주, 내야수 김원경과 김도원, 최수빈에 대해서는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육성 선수 말소를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2018 KBO 신인 드래프트 2차 1라운드(전체 6순위)로 KIA에 입단한 김유신은 데뷔 첫해인 2018시즌 10경기(2 선발·8 구원)에 등판해 승패 없이 평균자책점 9.69를 기록했다.

같은 해 퓨처스리그에서는 17경기(16 선발·1구원)에 등판해 8승 3패 평균자책점 3.71을 기록하며 기대를 모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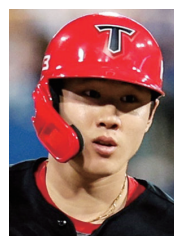
구단의 전략에 따라 상무 피닉스에 지원하며 시즌 직후 빠르게 군 복무를 시작했다.

2019시즌 퓨처스리그 18경기에 선발 등판해 12승 4패, 평균자책점 2.25를 기록한 김유신은 다승과 평균자책점에 탈삼진까지 선두에 오르며 3관왕을 차지, 기대주로 떠올랐다.

하지만 2019시즌 종료 후 토미 존 수술(팔꿈치 내측 인대 재건 수술)과 뺨조각 제거 수술을 받으며 2020시즌에는 재활에 전념했고, 전역 직후인 2021시즌 15경기(11 선발·4 구원)에서 2승 6패, 평균자책점 7.62를 기록하는 등 1군 자원으로 발돋움했으나 다시 뺨조각 제거 수술로 완주에 실패했다. 김유신은 올해 초 퓨처스리그에서 두 차례 선발 등판을 소화한 뒤 요추 골절로 전력에서 이탈, 이후에도 통증이 이어지면서 KIA 유니폼을 벗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게 됐다. **한규빈 기자**



김도영



최원준



한준수



전상현



정해영



최지민



곽도규

‘최다 인원’ 호랑이 군단, 프리미어12 무더기 태극마크 노린다

35명 대비 훈련 소집... KIA 7명
최지민 추가 발탁... 박찬호 제외

2024년 정규시즌 우승과 한국시리즈 직행을 확정 지은 KIA타이거즈의 젊은 피들이 열두 번째 우승을 넘어 세계 무대를 호령하는데 도전한다.

올해 페넌트레이스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거둔 만큼 대비 훈련 소집 명단에도 가장 많은 7명이 부름을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전력강화위원회는 WBSC(세계야구소프트볼협회) 프리미어12 2024 대비 훈련에 소집할 한국 야구 국가대표팀(팀 코리아) 명단을 13

일 발표했다.

이번 명단은 20대 중심으로 꾸린 60명의 예비 명단을 추려 35명으로 구성했다.

KIA에서는 정해영과 전상현, 곽도규, 최지민(이상 투수), 한준수(포수), 김도영(내야수), 최원준(외야수)이 이름을 올렸다. 예비 명단에는 없었던 최지민이 새로 합류했고, 박찬호(내야수)는 제외됐다.

10개 구단 중 최다인 7명이 발탁된 KIA를 비롯해 LG 6명과 두산·삼성·KT 4명, NC 3명, 롯데·키움·SSG 2명, 한화 1명 등이 부름을 받았고 투수 17명과 포

수 3명, 내야수 9명, 외야수 6명으로 꾸려졌다.

팀 코리아는 오는 23일 소집돼 다음 날부터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소집 훈련을 진행한다. 한국시리즈 진출 팀 소속 선수들의 경우 포스트시즌 일정이 모두 종료된 후 합류한다.

최종 엔트리 구성을 위한 평가전도 마련됐다. 다음 달 1일과 2일 쿠바 야구 국가대표팀과 두 차례 맞대결을 치른 뒤 28명의 최종 엔트리를 발표하고, 8일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대회지인 대만 타이베이로 출국한다.

한규빈 기자